

광주교육청, 교육 혁신 우수사례 대상

지역기관 협업 급식실 지원사업 방역강화·예산절감·일자리 창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부 주관 2022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했다. 2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이 추진하는 '전국 최초 지역기관 협업을 통한 학교급식실 업무 지원사업'이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됐다.

'교육 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매년 현장의 변화와 혁신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열린다. 올해는 각 시도교육청, 국립대학, 교육부에서 제출한 사례를 대상으로 1차 심사를 거쳐 총 12편이 선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사례는 교육청 부문(총 4개)

우수사례로 선정돼 최종 투표에서 경합을 벌였다.

최종 투표는 지난 10~17일 온라인 국민심사 투표 방식으로 치러져 총 5769명이 참여했다. 시 교육청은 '지역기관 협업을 통한 학교급식실 업무 지원사업'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지역기관 협업을 통한 학교급식실 업무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실의 업무 과중을 해소해 급식실 종사자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구축하고자 전국 최초로 시행된 사업이다.

시교육청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실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로 급식업무 종사자들의 업무가 과중해지자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광주지방방역노동청, (사)광주경영자총

협회 간 협업체를 구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일자리 구인희망자의 인건비를 지원, (사)광주경영자총협회는 구인희망자를 매칭, 광주시교육청은 일자리와 일경험 장소를 제공하게 됐다.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276교에 638명을 배치해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 강화, 인력 고용 예산 절감 및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 등 여러 방면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정선 교육감은 "우리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귀 기울여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동진 광주대 총장이 광주·전남 지역 진학지도 고교 교사들에게 학교 입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학교의 메시지를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발표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2023학년도 대입 광주 진학지도 교사 컨퍼런스'

광주대학교(총장 김동진)가 지난 20일 학교 호심관 소강당과 강의실에서 '2023학년도 대입 대비 광주 진학지도 교사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광주진학부장협의회와 광주대가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광주·전남 지역 진학지도 고교 교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광주대에서는 김동진 총장을 비롯해 김갑용 부총장, 박경중 기획처장, 김은실 입학처장 등이 참여해 진학과 대입 전략 등의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김동진 광주대 총장의 환영사와 프레젠테이션, 수시 대비 지원 전략 등 6개 주제의

초청특강으로 진행됐다.

김동진 총장은 이날 직접 2023학년도 입시홍보를 위한 광주대 장점 및 체계적인 학생지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참여 진학지도 교사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광주대 김은실 입학처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광주·전남지역의 고교 진학지도 교사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며 "특히 김동진 광주대 총장이 직접 입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학교의 메시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신대 '예비 신입생 위한 스페셜 워크숍'



동신대학교 공연예술무용학과는 최근 대학 체육관 4층 대연습실에서 '예비 신입생 위한 스페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선착순 접수를 받은 실용무용 전공 예비 신입생 50명을 대상으로 댄스 'Hiphop 5000', 안무가 'Wootae'가 맞춤형 안무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올해 신설된 동신대 공연예술무용학과는 순수무용과 실용무용, 공연예술 분야까지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학과로서, 전남 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종합 공연예술학과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

일반고 교원 등 100명 대상

전남교육청이 최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남 연구원에서 일반고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제1기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과정을 운영했다.

고교학점제 전문가 양성과정은 미래사회의 변화에 따른 고교 교육의 방향,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학생의 진로·적성 맞춤형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의 학업 설계·관리 등 교원의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과정은 기본-심화-전문과정 총 3단계로 구성됐으며 기본-심화과정은 사전 원격연수로, 전문과정은 집합연수로 이뤄졌다.

이번 연수는 3단계 중 전문과정으로 참가자들이 20명씩, 5개 분반으로 나눠 실습형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미래교육과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와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평가, 고교학점제와 대입전형, 학업 설계와 과목 선택 실습,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의 내용을 연수를 받았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생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게 되므로 진로 설계 및 교과 선택 능력이 중요하다"며 "학생의 진로 및 과목선택 상담, 학습설계 지도, 학업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대, 로봇드론공학과 신설... 4차산업 전문인재 양성

호남대학교(총장 박상철)가 2023학년도 로봇드론공학과 신설을 계기로 4차산업혁명시대 핵심 산업 전문인재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호남대 로봇드론공학과(학과장 김광택)는 최근 광주전남지역혁신플랫폼 미래형운송기기육성사업단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의 '실무 능력 배양을 위한 실습환경 구축사업'에 선정됐다.

호남대학교는 총 1억 51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오는 2학기부터 1년간 대학 내에 산업용 드론 제어 'GCS-HUB' 실습 평가환경을 조성하고 비교과과정 드론스포츠 테스트베드 실습장과 전문교육기관 연계 국가자격 실기 비행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호남대는 이 사업을 통해 미래형 운송기기 오픈 캠퍼스 HUB를 구축, 23학년도 첫 신입생 모집(28명)에 나선 로봇드론공학과 학생은 물론 드론

에 관심 있는 모든 재학생과 지역산업체를 아우른 현장 실무형 지역인력 양성 선발 및 전문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호남대는 올 초부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인 한국스마트드론(주) (대표 이광윤)과 공동으로 개발한 무인드론항공선 실증 테스트도 진행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과제도 진행되고 있는 드론 항공선 사업은 올해 말까지 지속적인 비행 테스트를 거쳐 향후 지자체를 비롯해 산림청, 해양수산부, 국립공원 등과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밖에도 호남대는 지난 8월 8일 김형중 감독을 비롯해 주장 이승민(2학년) 등 10명으로 구성된 드론 축구단 '에어울프(Air Wolf)'를 창단, 6년 전 우리나라에서 개발돼 최근 세계적 레저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드론 축구계에 첫 발을 내딛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의료 과소비!

일부의 무분별한 의료 행위는 모두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바람직한 의료이용! 실손의료보험 수호의 시작입니다!